

# 취업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방과 후 보호형태와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 Psychological well being of children with working mother's depending on the type of after school care and parental attitude

오선영 · 최정미\*

인천국공립 고잔어린이집 원장 · 초당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겸임교수

Oh, Sun Young · Choi, Jung Mi\*

GoJan Child Day Care Center · Dept. of Child Welfare, Choda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influences of the type of after school care and the degree of mothers' affection and monitoring toward their children on the psychological well being of children with working mother. For this research 437 children attending an elementary school with working parent were chosen.

The major finding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findings on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sychological well being of these children depending on the form of after school care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loneliness and self-perceives competence felt by children. Second, the results of the findings on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sychological well being of these children depending on the mother's affection and monitoring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loneliness and self-perceives competence felt by children. Thi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no matter what type of care a child gets, a mother's affection is the most effective variable which influence toward a child's psychological well being.

Key Words : psychological well being, parental attitude, after school care

## I. 서론

현대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됨에 따라 가정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여성의 취업률도 증가하게 되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취업률 감소가 국가경제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에는 기혼 여성,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어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모의 경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는 자녀양육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김경혜, 1998; 임선심, 1998), 학령 전 아동에 비해 학령기 아동을 둔 취업모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보육에 관한 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인식도 미흡한 상태로써, 아직까지 취업모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위

한 방과 후 보육서비스는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모의 자녀 양육문제는 이제 취업모 개인이나 한 가족의 문제라는 틀을 벗어나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신적, 사회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성인의 적절한 돌봄과 훈육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있어 방과 후 생활에 대한 보호와 지도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비취업모 자녀들과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인 취업모 자녀들의 경우, 방과 후에 경험하게 되는 보호형태에 따른 경험 즉 방과 후 어떻게 보호받고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경험하였는가는 이후 아동의 정서적인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므로(Posner & Vandell, 1994) 방과 후 보호형태와 취업모 자녀의 발달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Corresponding author: Choi, Jung Mi  
Tel: 062)530-1317, Fax: 062)530-1329  
E-mail: shuma523@hanmail.net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기 아동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 들어서서 방과 후 학령기 아동에 관한 연구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어 아동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관련된 연구들이 부족할 뿐 아니라 몇몇 연구들을(옥경희 등, 2001; 장영은, 1998) 제외하고는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과 자기보호 아동에 국한시켰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취업모 자녀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돌보아 줄 성인이 없이 아동이 혼자서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생활을 하는 자기보호 뿐만 아니라 취업한 부모를 대신한 대리양육자에 의해 돌보아지는 성인보호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취업한 부모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호와 교육을 함께 해주는 방과 후 시설보호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방과 후 보호형태별로 아동의 심리·정서적 측면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시기는 아직도 부모 혹은 성인의 보호와 감독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시기로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보호형태 못지 않게 취업모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들 수 있다(박선자, 1994; 안현숙, 2000; Bronfenbrenner, Alvarez, & Henderson, 1984; Hoffman, 1989). 양육태도 중 자녀발달에 중요하다고 가장 자주 보고되는 것으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들 수 있으며(박선자, 1994; 안현숙, 2000; 이영순, 김미라, 2000; 임선심, 1998), 이외에도 취업모 자녀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제시되는 양육태도로는 성장하는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는 감독(monitoring)행동을 들 수 있다(천희영, 옥경희, 김미해, 2001; Crouter, Macdemid, McHale, & Perry-Jenkins, 1990; Pettit, Bates, Dodge & Meece, 1999; Stattin & Kerr, 2000). 부모감독(parental monitoring)이란 '자녀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친구와 있고', '무엇을 하는지'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고 지지해 주는 애정적 태도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관리해주는가에 대한 감독정도가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감독이 초등학교 저학년 취업모 자녀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는 점을 예측케 해준다. 그러나 부모감독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학령기 후기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관련변인으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학업성취 행동, 비행행동, 또래관계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있을 뿐 아동의 정서발달과 같은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녀의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기대하면서도 취업으로 인해 시간제약과 같은 이유로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취업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감독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 측면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한편,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은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측면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유능감, 불안 등과 같은 개념들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심리적 복지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통하여 아동의 적응상태를 평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의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 being)란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기초로 평가하는 방법과, 부정적인 측면만을 기초로 평가하는 방법,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평가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보다 포괄적으로 심리적 복지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선호되는 추세이다. 아동의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주로 자아유능감, 지지감, 향상감 등이 포함되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불안, 우울, 외로움 등이 포함된다(장영은, 1998; 최진원, 2001; Cowen, 1994). 특히 자아유능감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상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발달특성상 불안,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불안정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므로 심리적 복지 중 긍정적 측면으로 자아유능감과 부정적 측면으로 불안, 외로움을 선정하여 아동의 심리적 복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른 생활 및 경험이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주현, 1995; 옥경희, 김미해, 천희영, 2001; 장영은, 1998). 즉, 초등학교 저학년인 취업모 자녀의 경우 연령이 어릴 뿐만 아니라 고학년에 비해 혼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고(장영은, 1998; Vandell & Corasanti, 1988), 학원 수강이 끝난 이후의 시간에도 여전히 혼자 지내야 하는 아동은 집에 돌아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외로움과 두려움, 소외감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다른 형태의 보호를 받은 아동에 비해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 측면은 낮는데 비해 부정적인 측면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주현, 1995; 옥경희, 김미해, 천희영, 2001; 한명희, 1991; Dichtel, 1986; Posner & Vandell, 1994; Zill, 1983).

이렇듯 방과 후 보호형태가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는데, 방과 후 보호형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김경연, 1987; 이영순 등, 2000; Becker, 1964; Vandell & Rodmanan,

1991)임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어머니가 자녀에게 얼마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녀의 일상 생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감독하느냐 하는 것이 이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취업모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보호형태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방과 후 보호형태별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알아봄으로써 현실적으로 유용한 방과 후 시설보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의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아동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보호형태(자기보호, 성인보호, 방과 후 시설 보호)에 따라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양육태도(애정적 양육태도와 감독)에 따라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방과 후 보호형태별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부·모 학력)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애정적 양육태도와 감독)가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중인 취업모 자녀 437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개교와 방과 후 시설 6곳에서 대상 아동을 표집하였다. 방과 후 시설은 울산광역시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6개의 시설(사회복지관 2곳, 어린이집 3곳, 공부방 1곳)을 방문하여 6개월 이상 방과 후 시설에 다니고 있는 2, 3학년 아동 118명을 대상으로 질문조사를 하여 부실응답을 제외한 108명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보호형태별로는 자기보호 아동 142명, 성인보호아동 187명,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 108명으로 선정되었고, 총 437명의 아동이 작성한 질문지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437)

| 변인  | 구분    | N (%)     | 변인  | 구분    | N (%)     |
|-----|-------|-----------|-----|-------|-----------|
| 성별  | 남아    | 230(52.6) | 학년  | 2학년   | 207(47.4) |
|     | 여아    | 207(47.4) |     | 3학년   | 230(52.6) |
| 부학력 | 중졸 이하 | 22( 5.0)  | 모학력 | 중졸 이하 | 39( 8.9)  |
|     | 고졸    | 238(54.5) |     | 고졸    | 262(60.0) |
| 력   | 대졸 이상 | 177(40.5) | 력   | 대졸 이상 | 136(31.1) |

## 2. 측정 도구

### 1) 아동의 심리적 복지척도

불안 척도는 Reynolds & Richmond(1978)의 아동용 불안표출 개정판검사(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s ; RCMAS)를 기초로 최진숙, 조수철(1990)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맞게 선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문항들을 선정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고, 3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되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a)는 .83으로 나타났다.

외로움 척도는 Asher, Hymel & Renshaw(1984)의 아동용 외로움 척도(Loneliness Questionnaire)와 장영은(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맞게 선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Asher 등(1984)의 외로움 척도 중 외로운 감정에 해당하는 문항들과 장영은(1998)의 가족관계에 대한 외로움 문항들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2, 3학년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문항들을 선정하여 총 9문항을 외로움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3점 리커트 척도로 신뢰도 계수(Cronbach'a)는 .70으로 나타났다.

자아유능감 척도는 Hater(1982)의 아동용 유능감 지각 검사(The Perceived Competences Scales for Children ; PCSC)를 기초로 연구대상에 맞게 선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별로(인지: 4문항, 사회성: 3문항, 신체: 4문항, 자신에 대한 일반적 지각: 4문항)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이해하기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정하여 총 15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고, 3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되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a)는 .74로 나타났다.

### 2) 방과 후 보호형태

방과 후 보호형태는 보호를 받는 장소과 시간을 기준으로 방과 후 보호형태를 방과 후 자기보호, 성인보호, 방과 후 시설보호로 분류하기 위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은 시설에서 거의 생활을 하게 되므로 질문지를 구성할 때 자기보호 및 성인보호 아동의

질문지와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의 질문지를 따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 3)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감독 척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박성연, 이숙(1990)과 최정미(1999)가 사용한 애정행동 문항들을 참고로 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어머니 애정적 양육태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4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감독척도는 어머니가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Crouter, MacDermid, McHale과 Perry-Jenkins(1990)의 부모와의 전화면접을 통해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한 지식을 조사할 때 사용했던 질문들을 기초로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감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총 5문항이 사용되었으며,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어머니 자녀감독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60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 ANOVA, 추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비교 검정, 상관관계분석과 stepwise방법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른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른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의 하위영역인 불안, 외로움, 자아유능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리고 사후검정으로 Duncan검증을 하였다.

결과들을 살펴보면,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한 변인인 취업모 자녀의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김주현(1995)의 연구와 김명숙과 정영숙(199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른 취업모 자녀의 외로움의 수준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아동이 방과 후 시간에 어떤 보호를 받느냐에 따라 취업모 자녀의 외로움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자기보호 아동의 외로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이 그 다음으로, 성인보호 아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보호 아동보다 더 높은 외로움을 보인다고 한 연구결과들(장영은, 1998; Dichtel, 1986; Long & Long, 1983; Zill, 1983)과 일치한다. 그리고 방과 후 시설보호에 참여한 아동이 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외로움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방과 후 시설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일수록 또래관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된 Posner와 Vandell(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이 성인보호 아동보다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방과 후 시설들의 질이 대체로 열악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성인과 아동과의 질적 관계 형성이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방과 후 보호형태별 자아유능감의 수준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p<.01$ ),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과 성인보호 아동의 자아유능감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자기보호 아동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자아유능감이 낮다는 연구결과들(오은숙, 2000; 장영은, 1998; Halpern, 1992)과 일치한다. 성인보호와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성인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보호 아동보다 자아유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2>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른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

| 구분        | 심리적복지 |     | 불안    |      |     | 외로움  |      |       | 자아유능감 |      |        |
|-----------|-------|-----|-------|------|-----|------|------|-------|-------|------|--------|
|           | 보호형태  | N   | M     | SD   | D   | M    | SD   | D     | M     | SD   | D      |
| 자기보호      |       | 142 | 10.33 | 5.56 |     | 5.60 | 2.99 | A     | 17.86 | 4.60 | B      |
| 성인보호      |       | 187 | 10.56 | 6.05 |     | 4.81 | 2.74 | B     | 19.14 | 4.11 | A      |
| 방과 후 시설보호 |       | 108 | 10.14 | 5.63 |     | 5.09 | 2.87 | AB    | 19.17 | 3.77 | A      |
| F 값       |       |     |       |      | .18 |      |      | 3.03* |       |      | 4.52** |

\* $p<.05$  \*\* $p<.01$

2.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본 연구에서 선정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감독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표 3>참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의 변인 중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즉, 어머니의 애정이 높은 집단에서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은 낮고, 반대로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유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는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김경연, 1987; 박영애, 정옥분, 1996; Growe, 1980)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감독 또한 아동의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즉,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감독이 높을수록 아동은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감독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유능

감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김정아, 1990; 김종희, 1993; 옥경희 등, 2001)과 일치한다.

3. 방과 후 보호형태별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제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4, 5, 6>참조).

방과 후 보호형태별로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tepwise 방법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1.84~2.07), 잔차 간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어머니 애정적 양육태도와 감독에 따른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

| 변인       | 집단        | 불안    |      |   | 외로움  |          |   | 자아유능감 |          |   |
|----------|-----------|-------|------|---|------|----------|---|-------|----------|---|
|          |           | M     | SD   | D | M    | SD       | D | M     | SD       | D |
| 애정적 양육태도 | 상 (N=127) | 10.00 | 5.89 |   | 3.91 | 2.69     | C | 20.85 | 4.23     | A |
|          | 중 (N=194) | 10.20 | 5.57 |   | 5.14 | 2.74     | B | 18.61 | 3.81     | B |
|          | 하 (N=116) | 11.12 | 6.00 |   | 6.49 | 2.81     | A | 16.63 | 3.81     | C |
|          | F값        |       | 1.32 |   |      | 27.00*** |   |       | 35.11*** |   |
| 감독       | 상 (N=128) | 10.65 | 6.03 |   | 4.26 | 2.66     | C | 19.96 | 4.17     | A |
|          | 중 (N=174) | 10.49 | 5.73 |   | 5.27 | 2.88     | B | 18.74 | 4.11     | B |
|          | 하 (N=135) | 10.00 | 5.63 |   | 5.81 | 2.96     | A | 17.57 | 4.16     | C |
|          | F값        |       | .47  |   |      | 10.17*** |   |       | 10.94*** |   |

집단분류기준 : 상> M+SD, M-SD ≤ 중 ≤ M+SD, 하<M-SD \*\*\*p<.001

<표 4> 자기보호 아동의 심리적 복지와 변인들간 상관관계

| 변수       | 1     | 2      | 3      | 4    | 5       | 6       | 7      | 8       |
|----------|-------|--------|--------|------|---------|---------|--------|---------|
| 1. 학년    |       |        |        |      |         |         |        |         |
| 2. 성별    | -.18* |        |        |      |         |         |        |         |
| 3. 부학력   | -.05  | .06    |        |      |         |         |        |         |
| 4. 모학력   | -.12  | .05    | .63*** |      |         |         |        |         |
| 5. 모애정   | -.02  | -.11   | .02    | -.02 |         |         |        |         |
| 6. 모감독   | .01   | -.07   | .02    | -.03 | .25**   |         |        |         |
| 7. 불안    | .03   | -.25** | .02    | -.12 | -.15    | .08     |        |         |
| 8. 외로움   | -.05  | .17*   | -.07   | -.03 | -.43*** | -.28*** | .26**  |         |
| 9. 자아유능감 | .01   | -.16   | -.09   | .09  | .49***  | .22**   | -.23** | -.58*** |

학년: 1-2학년, 0-3학년/ 성별: 1-남, 0-여 \*p<.05 \*\*p<.01 \*\*\*p<.001

<표 5> 성인보호 아동의 심리적 복지와 변인들간 상관관계

| 변수       | 1       | 2       | 3      | 4     | 5       | 6       | 7      | 8       |
|----------|---------|---------|--------|-------|---------|---------|--------|---------|
| 1. 학년    |         |         |        |       |         |         |        |         |
| 2. 성별    | -.07    |         |        |       |         |         |        |         |
| 3. 부학력   | .03     | -.14    |        |       |         |         |        |         |
| 4. 모학력   | .08     | .03     | .57*** |       |         |         |        |         |
| 5. 모애정   | -.03    | -.17*   | .13    | .17*  |         |         |        |         |
| 6. 모감독   | -.23*** | -.10    | -.05   | -.15* | .29***  |         |        |         |
| 7. 불안    | .05     | -.30*** | -.05   | -.09  | -.02    | .06     |        |         |
| 8. 외로움   | .29***  | .04     | -.02   | -.04  | -.38*** | -.24*** | .23*** |         |
| 9. 자아유능감 | -.15*   | .04     | .07    | .10   | .34***  | .24***  | -.21** | -.54*** |

학년:1-2학년, 0-3학년/ 성별: 1-남, 0- 여 \*p<.05 \*\*p<.01 \*\*\*p<.001

<표 6>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의 심리적 복지와 변인들간 상관관계

| 변수       | 1     | 2      | 3      | 4     | 5       | 6     | 7      | 8       |
|----------|-------|--------|--------|-------|---------|-------|--------|---------|
| 1. 학년    |       |        |        |       |         |       |        |         |
| 2. 성별    | .20*  |        |        |       |         |       |        |         |
| 3. 부학력   | .27** | .13    |        |       |         |       |        |         |
| 4. 모학력   | .13   | .14    | .64*** |       |         |       |        |         |
| 5. 모애정   | .02   | -.07   | -.10   | -.05  |         |       |        |         |
| 6. 모감독   | .04   | .14    | -.11   | -.07  | .13     |       |        |         |
| 7. 불안    | -.11  | -.30** | -.18   | -.19* | .01     | .05   |        |         |
| 8. 외로움   | .14   | -.10   | -.06   | .09   | -.41*** | -.24* | .29*** |         |
| 9. 자아유능감 | .07   | .06    | .12    | .07   | .46***  | .25*  | -.08   | -.61*** |

학년:1-2학년, 0-3학년/ 성별:1-남, 0-여 \*p<.05 \*\*p<.01 \*\*\*p<.001

1) 불안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성별( $\beta = -.26, p < .01$ )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beta = -.18, p < .05$ )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9%였다. 즉, 남아에 비해 여아가 지각하는 불안정도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애정정도를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이 느끼는 불안정도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불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성별로 나타난 이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있어 자기보호라는 상황 자체가 그만큼 위험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많으므로 심리적 복지에 불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애

정을 높게 지각할수록 불안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어머니의 취업으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자기보호 상황에 두더라도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동안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따뜻하게 대하는 등 애정적으로 양육한다면 자기보호 아동의 불안은 상당히 감소될 수 있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지각하는 불안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특히 자기 보호 상황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성인보호와 방과 후 시설보호의 경우 불안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성별( $\beta = -.30, p < .001, \beta = -.30, p < .01$ )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각각 9%였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불안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7> 불안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 보호형태      | 독립변인 | B     | $\beta$ | PR <sup>2</sup> | R <sup>2</sup> | F        |
|-----------|------|-------|---------|-----------------|----------------|----------|
| 자기보호      | 성별   | -2.99 | -.26**  | .06             | .09            | 7.12***  |
|           | 모애정  | -.41  | -.18*   | .03             |                |          |
| 성인보호      | 성별   | -3.58 | -.30*** | .09             | .09            | 17.78*** |
| 방과 후 시설보호 | 성별   | -3.31 | -.30**  | .09             | .09            | 10.09**  |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별은 아동의 심리적 복지의 한 변인인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김명숙, 정영숙, 1997; 이희진, 1989; 장영은, 1998; 한명희, 1991; Galambos & Garbarino, 1985; Reynolds & Richmond, 1978; Zill, 1983)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보호 아동과는 달리 성인보호나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이 느끼는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심리적 복지의 한 변인인 불안은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외로움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 중 외로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심리적 복지의 한 변인인 외로움에 대해서는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beta = -.39, p < .001$ )와 어머니의 감독( $\beta = -.19, p < .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22%였다. 즉, 아동이 어머니의 애정과 감독을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인보호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beta = -.37, p < .001$ )와 아동의 학년( $\beta = .28, p < .0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23%였다. 즉, 학년에 따라 어머니의 애정을 낮게 지각할

수록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과 후 시설보호 형태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beta = -.39, p < .001$ )와 어머니의 감독( $\beta = -.19, p < .05$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21%였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외로움은 어머니의 애정과 감독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외로움에 대한 보호형태별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세 형태 모두 어머니의 애정이 아동의 외로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자기보호와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감독정도가 낮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애정적이지 못하고 감독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정신건강상의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명숙, 정영숙, 1997; 신경숙, 1993; 이영순, 김미라, 2000; Symonds, 1949)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 자아유능감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 중 자아유능감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심리적 복지의 한 변인인 자아유능감에 대해서는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beta = .50, p < .0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의 설명력은 27%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애정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유능감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외로움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 보호형태      | 독립변인 | B    | $\beta$ | PR <sup>2</sup> | R <sup>2</sup> | F        |
|-----------|------|------|---------|-----------------|----------------|----------|
| 자기보호      | 모애정  | -.47 | -.39*** | .19             | .22            | 19.63*** |
|           | 모감독  | -.24 | -.19**  | .03             |                |          |
| 성인보호      | 모애정  | -.44 | -.37*** | .15             | .23            | 26.76*** |
|           | 학년   | 1.55 | .28***  | .08             |                |          |
| 방과 후 시설보호 | 모애정  | -.52 | -.39*** | .17             | .21            | 13.30*** |
|           | 모감독  | -.22 | -.19*   | .04             |                |          |

\*p<.05 \*\* p< .01 \*\*\*p<.001

<표 9> 자아유능감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 보호형태      | 독립변인 | B    | $\beta$ | PR <sup>2</sup> | R <sup>2</sup> | F        |
|-----------|------|------|---------|-----------------|----------------|----------|
| 자기보호      | 모애정  | .93  | .50***  | .24             | .27            | 25.11*** |
|           | 모감독  | .24  | .15*    | .02             |                |          |
| 성인보호      | 모애정  | .53  | .30***  | .12             | .14            | 14.68*** |
|           | 모감독  | .24  | .15*    | .02             |                |          |
| 방과 후 시설보호 | 모애정  | .77  | .45***  | .21             | .28            | 13.45*** |
|           | 모감독  | .30  | .21*    | .04             |                |          |
|           | 부학력  | 1.21 | .19*    | .03             |                |          |

\* p<.05 \*\*\*p<.001

성인보호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beta = .30, p < .001$ )와 어머니의 감독( $\beta = .15, p < .05$ )이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유능감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14%였다. 즉, 자녀에게 어머니가 애정적으로 대하고 감독을 잘 할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유능감 수준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beta = .45, p < .001$ ) 어머니의 감독( $\beta = .21, p < .05$ ), 아버지의 학력( $\beta = .19, p < .05$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28%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들(김경연, 1987; 박영애, 정옥분, 1996; Growe, 1980; Openshaw, Thomas & Rollins, 1984)과 비슷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호형태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감독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방과 후 보호형태별로 이러한 관련변인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유용한 방과 후 시설보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른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성인보호와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외로움이 가장 높고 자아유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방과 후에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는 자기보호 아동에게 외로움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자기보호 아동의 부정적 측면의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자아유능감은 성인보호와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이 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자아유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주현, 1995; 장영은, 1998; Halpern, 1992; Posner & Vandell, 1994)과 비슷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동 혼자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성인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주고 받는 것이 자아유능감의 발달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며, 그런 의미에서 방과 후 아동의 숙제 및 학업을 도와주고 또래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을 장려하는 방과 후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의 하위영역인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감독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외로움 수준은 낮고 자아유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 애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공인숙, 1989; Harter, 1985; Paul, 1992). 이는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애정적이고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가가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인 취업모 자녀의 경우 어머니가 평소 애정적으로 자녀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고 관심을 보여주면 방과 후에 다소 긴 시간을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더라도 외로움을 덜 느끼고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머니가 일일이 감독을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대한 계획과 통제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적응훈련으로서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아동의 자아유능감을 높게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보호형태별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보호형태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불안에서는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성별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성인보호와 방과 후 시설보호에서는 성별만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에 있어서는 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성인보호집단은 아동의 학년, 자기보호와 방과 후 시설보호 집단은 어머니의 감독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아유능감 역시 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성인보호의 경우 어머니의 감독이, 방과 후 시설보호의 경우 어머니의 감독과 부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있으며,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외로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자아유능감의 지각이 가장 낮게 나타나서 다른 보호형태에 비해 심리적 복지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자기보호 아동은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에 관련된 심리적 복지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져,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기보호 아동에게 방과 후 시설 등을 확대하여 제공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둘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즉, 세 가지 보호형태에서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였으며, 자기보호 아동에 있어서는 불안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어머니가 취업으로 인해 부재한 경우라도 어머니와 자녀가 애정적이고 따뜻한 질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게 되면 아동의 외로움을 낮추고 자아유능감을 증가시키며 자기보호 아동에 있어서도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의 중요함을 홍보하는 한편, 애정적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장이나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어머니가 감독을 할수록 자기보호 아동과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은 외로움을 낮게 지각하였으며 성인보호 아동과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은 자아유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져 어머니의 감독은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반면에 취업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기 쉬우므로 감독의 필요성과 동시에 올바른 감독 방법의 교육을 취업모에게 제공해주면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넷째,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라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보호 아동과 성인보호 아동 및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에 있어서 아동의 심리적 복지의 하위요인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은 방과 후 보호형태별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보겠다. 예를 들어, 자기보호 아동은 어머니가 애정적으로 대하고 감독을 잘 하면 심리적인 복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으며, 여아의 경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성인보호 아동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하며 여아가거나 학년이 높을 때 불안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요망된다

고 하겠다. 또한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은 어머니가 애정적으로 대하고 감독을 잘 하면 외로움이 감소하고 자아유능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는 방과 후 보호형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른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면,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시설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는데, 대부분이 질적으로 열악한 실정이어서 방과 후 시설의 질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방과 후 시설을 선정하여 방과 후 시설의 질적인 면과 아동의 심리적 복지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지만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관련변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주제어 : 심리적 복지, 양육태도, 방과 후 보호

## 참 고 문 헌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 석사논문.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 박사논문.
- 김경혜(1998). 중산층 맞벌이가족의 자녀보육실태와 관련된 변인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 김명숙·정영숙(1997). 방과 후 자기보호와 성인보호 아동의 적응. 한국영유아보육학, 9, 183-196.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김종희(1993). 아동의 내·외통제 신념과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14, 11-20.
- 김주현(1995). 도시지역 「자기보호아동」(latchkey child)을 위한 방과후 탁아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박선자(1994). 어머니와 직업·양육태도·유아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중앙대 석사논문.
- 박성연·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영애·정옥분(1996).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7(1), 189-212.

- 신경숙(1993). 부모의 양육태도와 국민학생의 정신분석간의 상관. 경상대 석사논문.
- 안현숙(2000).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계명대 석사논문.
- 오은숙(2000). 자기보호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논문.
- 옥경희 · 김미해 · 천희영(2001).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정서 및 사회적 발달 : 부모보호와 자기보호 비교. 아동학회지, 22, 91-113.
- 이영순 · 김미라(2000).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불안과의 관계. 춘해대논문집, 145-165.
- 이희진(1989). 국민학교 아동의 고민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임선심(1998). 초등 1,2학년 방과 후 프로그램 시행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장영은(1998).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 취업모의 양육부담감의 차이. 서울대 석사논문.
- 천희영 · 옥경희 · 김미해(2001). 저소득층 청소년 초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감독 지식근원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3(2), 73-97.
- 최정미(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분석. 전남대 박사논문.
- 최진숙 · 조수철(1990). 소아 불안의 측정-RCM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신경정신학회지, 29(3), 691-701.
- 최진원(2001). 아동의 심리적 복지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 한명희(1991).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탁아서비스 도입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263-280.
- Asher, S. B., Hymel, S., Renshaw, P.D.(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 Becker, W.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and L. W. Hoffman.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 Y. : Russel Sage Foundation, 174-175.
- Bronfenbrenner, U., Alvarez, W., & Henderson, C.(1984). Working and watching employment and parents' perceptions of their three-year-olds childrens. *Child Development*, 55, 1362-1378.
- Cowen, E.(1994). The Enhancement of psychological welln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 149-180.
- Crouter, A.C., Macdemid, S.M., McHale, S.M., & Perry-Jenkins, M.(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and single 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49-657.
- Dichtel, J.M.(1986). The primary latchkey child: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y.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Galambos, N.L. & Garbarino, J.(1985). Adjustment of unsupervised children in a rural setting. *Journal of Child & Youth Quarterly*, 18, 131-140.
- Grove, G.A.(1980). Parental behavior and self-esteem in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47, 499-502.
- Halpern, R.(1992). The role of after school programs in the of inner city children : A study of Urban youth network. *Child Welfare*, 71(3), 215-230.
- Ha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1), 87-97.
- Hoffman, L.(1989).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 283-292.
- Long, T.J. & Long,L.(1981). *Latchkey children*. Urbana, IL; ERIC Clearing 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 Openshaw, D. K., Thomas, D.L., & Rollins, B.C.(1984).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 259-274.
- Paul, S. G.(1992).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self-perceptions of their compet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Pettit, G.S., Bates, J. E., Dodge, K. A., Meece, D.W.(1999). The impact of after-school peer contact on early adolescent externalizing problems is moderated by parental monitoring, perceived neighborhood safety and prior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0(3), 768-778.
- Posner, J. & Vandell, D.(1994). Low-income children after school care :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 school program?. *Child Development*, 65, 440-456.
- Reynold, C. R. & Richmond, B, O.(1978). What I think and feel : A ewvised measureof children's manifest anxiety. *Abnormal Child Psychological*, 6, 271-280.
- Stattin, H., Kerr, M.(2000). Parental monitoring :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4(4), 1072-1085.
- Symonds, P.M.(1949). The dynamic of parent-child relations. N.Y. : Columbia.(1988). The relation between third graders ; after school care and

- 
- social, academic and 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59, 168-177.
- Vandell, D.L.& Ramanan, J.(1991).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 Choice on after-school care and child of the working moth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37-643.
- Zill, N. 1983. *American children : Happy, health and insecure*. New York : Doubleday Anchor Press.
- (2004. 08. 29 접수; 2004. 10. 10 채택)